

# 서울시, 수소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수소차 보조금 지원

오는 20일부터 신청 접수 받아  
승용차 2950만원, 버스 3.5억 지원  
세제감면, 주차요금·통행료 할인도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17.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서울시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가속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각종 세제 감면, 이용 혜택을 제공해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네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되나, 신청한 날로부터 2달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네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 /서울시

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 대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2016년 수소차 30대를 시범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수소차 총 3604대(누적)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208억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290대와 수소 버스 35대 등 수소차 총 32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수소 승용차 '디올뉴네쏘' 대당 2950만원, 수소 버스인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대당 3억5000만원 지원된다.

수소 승용차는 보조금 지원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과 더불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남산터널 훈장통행료 면제 등 실질적인 운행 혜택도 제공된다. 전체 승용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 대상에 보급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및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이며 공고 후 6개월 경과한 우선순위 물량 중 미집행분은 일반 물량과 통합해 보급한다.

수소 버스는 공항버스·통근버스 등으로 사용되는 고상 버스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공항·전세버스 500여 대를 무공해 수소 버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시는 수소차 전환 가속화에 대비해 2028년까지 ▲공영차고지 내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 4개소(가용 충전량 400대) ▲민간 충전소 1개소(가용 충전량 40대)를 추가 확충하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9개소 13기(가용 충전량 5535대/일)는 작년 말 기준 시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 3442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규모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상암·양재·서초·문정동에 사전 예약부터 충전, 자동 결제가 한 번에 이뤄지는 시스템을 도입, 결제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충전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보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소연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친환경 '수소 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충전 인프라 또한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승용차·대중교통 등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소차 보급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자연계 사탐 응시 55.5%… “정시서 유리”

과탐 응시자 54.8% “정시서 불리”  
내년 입시 사탐린 현상 구조화 가능성

2026학년도 정시에서 자연계열 수험생 가운데 과탐 2과목 응시자는 절반 이상(54.8%)이 정시 지원 과정에서 불리함을 체감했다고 답했다. 반면 사탐 2과목 응시자는 유리했다는 응답이 절반에 근접했고, 불리하다는 응답은 20% 안팎에 그쳤다. 자연계열 내에서 탐구선택에 따른 체감격차가 확인되면서, 과탐 중심에서 사탐 포함 전략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정시 전략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14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정시 지원 수험생 16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교 이수과목 기준 자연계열 수험생(980명) 가운데 과탐 2과목 응시자의 54.8%가 “탐구 선택이 정시 지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자연계열임에도 사탐 2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은 47.6%가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답

해 대조를 보였다.

사탐 2과목 응시자 중 ‘불리하게 작용 했다’는 응답은 18.5%였으며 ▲큰 영향 없었다(24.7%) ▲잘 모르겠다(9.1%)로 나타났다. 과탐 2과목 응시자의 경우 ▲유리하게 작용했다(19.0%) ▲큰 영향 없었다(18.8%) ▲잘 모르겠다(7.3%)였다.

과탐 응시자들이 체감한 불리함은 탐구 선택 변화로도 이어졌다. ‘탐구 선택이 불리했다’고 응답한 과탐 응시자 가운데 57.7%는 “다시 선택한다면 사회탐구를 고르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탐 1과목+과탐 1과목’ 조합이 41.4%로 가장 많았고, ‘사탐 2과목’을 택하겠다는 응답도 16.3%로 집계됐다.

자연계 수험생들의 탐구 선택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도 수치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자연계열 수험생의 55.5%가 수능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를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탐과 과탐을 1과목씩 응시한 비율은 27.4%였고, 사탐만 2과목

응시한 비율은 28.1%로 집계됐다. 사탐 2과목 응시 비율이 혼합 응시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자연계열 내 ‘탈과탐’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자연계열임에도 사회탐구를 선택한 이유(중복 응답)로는 ‘사탐이 점수 받기 유리하다고 판단해서’가 84.7%로 가장 많았고,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가 43.9%로 뒤를 이었다. 과탐 학습 부담과 상위권 경쟁을 고려해 점수 효율과 학습 전략 차원에서 탐구 선택을 조정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사탐 선택은 단순히 공부가 편해서가 아니라 실제 정시 지원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수험생들의 체감 수치로 확인된 결과”라며 “불리함을 체감한 과탐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재도전 시 사탐 선택 의사로 밝힌 만큼, 내년 입시에서도 사탐린 현상은 더욱 구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인하대, ‘중외합작 판학’ 中 정부 승인

산동농업공정학원과 공동교육 운영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중국 산동농업공정학원과의 중외합작 판학프로그램을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중외합작 판학(辦學)사업은 중국 교육부의 승인을 바탕으로 교육·연구 역량

이 우수한 중국 대학과 외국 대학이 협력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중국 산동농업공정학원은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4년제 공립대학으로 지난(濟南)과 쪽보(淄博) 등 2곳에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영국, 러시아 등 20여 개 국가의 50여 개 대학·연구기관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갖추고 있다.

인하대는 중국 산동농업공정학원과 기계공학 전공에서 4+0 중외합작 판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9월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인하대에선 소속 전공 교수진이 중국 현지에 파견돼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2030년까지 매년 100명의 학생이 선발되며, 이들은 인하대의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한 후 두 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게 된다. /이현진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 美, 이란 추가 제재로 정권 옥죄다…트럼프 ‘군사 공격’ 지속 언급  
▲ 사우디도 이스라엘도…이란 인접 국가, 미국에 공격 자체 촉구

▲ 中 작년 수출입 ‘사상 최대’ 9600조원…9년 연속 증가  
▲ 볼턴 “트럼프 베네수엘라 ‘운영’ 정책 재앙적 실패한다”

▲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연명 서한 보내 앱스타 인 하원 증언 거부  
▲ “中 앤비디아 H200 칩 수입, 특별 경우만 승인”…사실상 수입통제

## 연내 ‘청라~영종’ 잇는 자전거 길 생긴다

인천시, ‘300리 자전거 이음길’ 속도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청라와 영종을 해안선을 따라 자전거로 일주할 수 있는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 사업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300리 자전거 이음길’은 제3연륙교 자전거길을 포함해 인천의 해안·도심·도서 지역을 하나의 순환형 친환경 교통망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 자전거길은 인천 서구 정서진을 출발해 제3연륙교~해안남로~무의도~용유해변~해안북로~북도~미단시티~제3연륙교~청라호수공원~아라뱃길로 이어지는 순환 노선으로, 총연장 130km(300리)에 달한다. 현재 영종도 북측 등 미조성 구간 약 20km를 새로 연결해 하



서구 구간에 조성된 300리 자전거 이음길 쉼터.

나의 완결된 자전거 순환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용진군·중구·서구가 공동 참여하며, 휴게시설 3곳과 전망 포인트를 설치해 자전거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안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36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권역별 단계적 추진을 통하여 자전거 길·쉼터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 오늘의 날씨

해뜰 /07:46 | 해짐 /17:37

